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26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산상설교』 상권 제26장, 인쇄 342~352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38~42

> ❓ 누가 나를 치면 그냥 맞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그럼 경찰도 군대도 재판도 없어야 하나요?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모세 율법이 본래 무엇을 하려던 법인지 밝힌다. 이 법은 끝없이 커지는 복수에 굴레를 씌우는 법이었고, 개인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어진 법이었다. 바리새인은 이 법을 개인이 보복할 권리이자 의무로 바꾸어 버렸고, 예수님은 바로 그 왜곡에 대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이 교회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다고 보고, 해석 원칙을 세운 뒤 톨스토이식 문자적 해석을 반박한다. 이 말씀은 국가나 세상이 아니라 팔복의 사람,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또 국가와의 관계나 전쟁·사형 문제가 아니라 개인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반응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그는 42절을 열쇠로 삼아, 이 단락 전체의 주제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 절별 정리

📜 1. 모세 율법의 본래 목적 — 복수에 씌운 굴레

로이드 존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진술이라고 확인한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어떤 의도로 주어졌는지 파악하는

갚으려 한다. 어린아이에게도 이 복수심이 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타락과 원죄(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죄의 성향)가 낳은 가장 추한 결과라고 부른다. 구원의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제어하시는 율법의 하나님이시다. 욥기에서 마귀조차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했듯이, 하나님은 율법으로 악을 통제하신다. 그래서 이 법은 동등과 공평을 요구한다. 눈 하나를 상하게 했다고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형벌은 범죄에 맞아야 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1. 이 법의 목적은 복수의 허용이 아니라 제한이다
2. 복수심은 원죄에서 나오며 아이에게도 있다
3. 은혜의 하나님이 곧 율법의 하나님이시다
4. 하나님은 악을 끝내 멸하시고, 그 전에도 통제하신다
5. 형벌은 범죄와 같아야 하고 넘쳐서는 안 된다

> **출애굽기 21:24**
> "눈은 눈으로"가 처음 나오는 율법 조항
>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레위기 24:20**
> 같은 원칙의 반복, 형벌은 피해와 같아야 함
>
>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 **신명기 19:21**
> 재판 절차 안에서 주어진 같은 규정
>
>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 **욥기 1:12**
>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예

"은혜의 하나님이 동시에 율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 2. 재판관에게 준 법을 개인의 무기로 — 바리새인의 두 가지 왜곡

로이드 존스가 가장 중요하게 짚는 점은 이 법이 개개인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에는 재판관 제도가 있었고, 분쟁이 생기면 백성은 그 일을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가져갔다. 피해만큼만, 그 이상은 아니게 갚도록 조정하는 것이 재판관의 일이었다. 오늘날 국가의 법이 법관을 통해 집행되는 것과 같다. 이 법은 사람들이 법을 제 손에 쥐고 멋대로 하려는 경향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전문가)은 여기서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재판관을 위한 법을 개인에게 적용했다. 둘째, "이 이상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 제한을 "이만큼은 갚아라"는 적극적 권리와 의무로 바꾸었다. 예수님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다.

1. 이 법은 개인이 아닌 재판관을 위한 것이었다
2. 목적은 사적 복수를 막고 공평을 세우는 것이다
3. 바리새인은 이 법을 개인에게 적용했다
4. 금지의 법을 보복의 권리로 뒤집었다
5. 예수님은 이 왜곡을 겨냥해 말씀하셨다

> **마태복음 5:38**
> 바리새인이 가르친 "너희가 들었으나"의 내용
>
>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마태복음 5:39**
> 그 왜곡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이 규정이 재판의 맥락에 놓여 있다는 근거

>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 3. 이 구절을 읽는 다섯 가지 원칙

로이드 존스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만큼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구절은 없다고 말한다. 유화주의(어떤 경우에도 힘으로 맞서지 말아야 한다는 평화주의 입장)는 많은 논쟁을 낳았고, 오히려 주님의 정신과 먼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래서 그는 앞에서 말한 해석 원칙을 다시 꺼낸다. 첫째, 산상설교는 행동을 하나하나 정해 둔 윤리 규범이나 모세 율법을 대신하는 새 법이 아니다.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확한 '예/아니요'를 요구하며 율법 아래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비극이다. 둘째,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문자를 얕보는 것은 아니지만 강조점은 영에 있다. 셋째, 해석이 이 말씀을 웃음거리로 만들면 틀린 것이다. 넷째, 해석이 이 말씀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틀린 것이다. 산상설교는 매일의 삶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해석이 성경의 다른 분명한 가르침과 부딪히면 틀린 것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야 한다.

1. 산상설교는 새 법전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다
2. 문자보다 영을 강조하되 문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3. 웃음거리가 되는 해석은 틀린 해석이다
4. 불가능하게 만드는 해석도 틀린 해석이다
5. 성경은 성경으로 풀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5:39

이 원칙들로 풀어야 할 논쟁의 구절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고린도후서 3:6

"문자보다 영"이라는 원칙과 이어지는 구절(설교의 표현과 연결)

>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 4. 톨스토이의 문자적 해석과 팔복의 사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말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런 식으로 모든 구절을 읽으면 우스꽝스럽고 있을 수 없는 해석에 이른다고 답한다. 이 해석을 대표하는 사람이 톨스토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군대와 경찰, 심지어 치안판사(작은 범죄를 다루는 하급 재판관)를 두는 것조차 비기독교적이라고 했다. 경찰은 악에 저항하니 없어야 하고, 범죄에 형벌이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인정하지만 전쟁과 사형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로이드 존스는 문맥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산상설교는 이 명령이 아니라 팔복에서 시작한다. 이 명령은 심령이 가난하고(자기 무능을 철저히 아는), 죄 때문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 자질이 없는 자연인(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철저히 불가능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국가 정책으로 옹호하는 것은 이단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이 문제를 단번에 정리하셨다.

3. 이 명령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4. 국가 정책으로 삼으면 행위 구원이 된다
5. 니고데모에게 하신 답: 먼저 거듭나야 한다

마태복음 5:3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은 자기 무능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4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5

세상과 반대되는 영을 가진 온유한 사람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요한복음 3:3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7

“거듭나야 하겠다” — 행위가 아니라 새 출생이 먼저다

>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같은 삶을 살기에 앞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며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 5. 세상에는 여전히 "눈은 눈으로" — 법과 질서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로이드 존스는 온 세상과 국가와 비그리스도인에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율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말한다. 공명정대의 원칙이 사람을 제어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지나침을 통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법과 질서를 믿어야 하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무법은 통제되어야 하고 악과 범죄에는 굴레를 씌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신약성경은 사람이 은혜 아래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는 현대의 혼란이 바로 여기서 들어왔다고 진단한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아이가 잘못해도 벌하지 말고, 법과 질서를 없애고, 먼저 모두를 사랑해서 착하게 만들자”로 바꾸었고,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세상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단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기까지는 율법이 악을 드러내고 굴레를 씌운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유화주의나 기독교 사회주의가 이 본문에 기초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본문을 부정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런 시도가 끝내 쓸모없음을 깨달은 톨스토이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1. 세상과 국가에는 여전히 율법이 적용된다
2. 그리스도인은 법과 질서를 지지해야 한다
3. 권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4. 은혜 아래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다
5. 인간 스스로 세상을 고친다는 생각은 이단이다

> **로마서 13:1**
>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 국가 질서의 근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4

권세가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갈라디아서 3:24

은혜 이전에 율법이 맡는 역할(설교의 “은혜 아래 오기까지 율법 아래”와 연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 6. 개인 관계에 대한 말씀 — 둘째·셋째 원칙

로이드 존스는 해석을 이끄는 원칙을 두 가지 더 든다. 둘째 원칙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 시민인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그것도 그의 개인 관계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직접 해를 끼쳤을 때 내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는 이 본문에서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그 관계는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에서 충분히 가르친다. 셋째 원칙은 사형이든 전쟁이든, 생명을 빼앗는 문제를 이 본문이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님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그리스도인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말씀하고 계신다.

1. 이 말씀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다룬다
2. 국가와의 관계는 이 본문의 주제가 아니다
3. 국가 관계는 로마서 13장, 베드로전서가 가르친다

마태복음 5:39~41

뺨, 옷, 오 리 — 모두 나에게 개인적으로 가해진 일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로마서 13:1~7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여기서 따로 가르친다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

베드로전서 2:13~14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국가 관계의 가르침(번역본 표기 '1장 2절'은 문맥상 이 구절로 보인다)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다면 이 단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로이드 존스는 열쇠가 42절에 있다고 본다. 꾸어 달라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뺨, 고소, 오 리와 함께 있기에 처음에는 어색해 보인다. “빌려주는 것이 보복하지 않는 것, 싸우고 죽이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바로 여기에 단서가 있다. 주님은 내내 '자아', 곧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심을 두신다. 그는 이 자아의 태도가 네 곳에서 드러난다고 말한다. 악행을 당할 때 즉각 일어나는 자기방어(뺨),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복수심(옷을 빼앗으려는 고소), 사회나 국가가 부당하게 요구할 때의 반응(억지로 가는 오 리), 사유재산에 대한 태도(꾸어 달라는 사람)이다. 자아는 타락에서 나왔고, 자기를 자랑하며 신처럼 높이려 하며, 온갖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려 한다. 누가 빌려 달라고 하면 “왜 내 것이 줄어야 하나”가 본능적 반응이다. 바리새인은 이 말씀을 율법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로만 읽었고, 극형이나 전쟁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끌어내렸다. 주님은 이것이 영의 문제, 특히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신다. 참 제자는 자기에 대해 죽어야 한다.

1. 42절이 이 단락 전체를 푸는 열쇠다
2. 주제는 보복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태도다
3. 자기방어, 복수심, 부당한 요구, 소유로 드러난다
4. 자아는 타락에서 나와 스스로를 신처럼 높인다
5. 제자는 자기 권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 **마태복음 5:42**
> 소유 문제가 이 단락에 있다는 것이 '자아' 주제의 단서
>
>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 **마태복음 5:39~41**
> 자기방어, 복수, 부당한 요구 앞에서 자아가 드러나는 장면들
>
>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 자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제자도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언제나 자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형벌이 피해보다 커지지 않게 막으려고 재판관에게 주신 공평의 법이다.

원죄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죄의 성향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고 엄격히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율법의 뜻을 문자와 외형으로 바꾼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치안판사
지역에서 비교적 작은 범죄와 분쟁을 재판하는 법관이다.

유화주의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도 힘으로 악에 맞서서는 안 된다는 기독교 평화주의 입장을 가리킨다.

자연인
아직 거듭나지 않아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다.

행위에 의한 칭의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성경이 부정하는 생각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눈은 눈으로”는 복수를 허락하는 법이 아니라 재판관을 통해 복수를 제한하는 공평의 법이었다.
-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국가나 세상의 정책이 아니라 거듭난 팔복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세상에는 여전히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
- 이 말씀은 전쟁이나 사형이 아니라, 개인에게 해가 가해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반응을 다룬다.
- 42절이 보여 주듯 이 단락 전체의 핵심은 자아의 문제이며, 참 제자는 자기에 대해 죽고 자기를 부인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